

생명·고향·미래의 땅 금산



제40회 금산인삼축제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축하 비행 확정



금산이 Geumsan Ginseng 뿌리입니다



제2회 금산 삼계탕축제

2022.7.15(금) ~ 17(일)
금산인삼관 광장



세계한인체육인, 금산인삼 홍보대사 위촉 - 금산인삼의 우수한 효능, 우리가 세계에 알린다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회장 윤만영) 회장단을 초청,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식을 지난 5월 23일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산인삼 세계화를 위해 추진된 이날 위촉장 및 위촉패 전달에는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윤만영 회장을 비롯한 영국, 브라질, 독일 등 재외대한체육회 회장단과 금산군체육회 한사연 사무국장, (사)금산군식품기업인협회 권득상 이사장, 금산군 대표브랜드 금홍 정원식 사무국장, 금산인삼소공인발전협의회 임동현 부회장, 김한나 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영수 진흥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상의 혼이 담긴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고려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을 수락해 주신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회장단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촉식은 금산인삼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인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시발점으로 홍보대사의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윤만영 회장은 “대한민국 인삼의 중심인 금산인삼의 홍보대사를 할 수 있게 돼 영광이

며, 진흥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금산인삼이 재외동포 체육인뿐만 아니라, 모든 동포들에게 우수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주재국 국민들에게도 금산인삼의 우수한 효능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홍보대사 위촉식은 위촉장과 함께 홍보대사 위촉식을 위해 특별히 한국 음식조형물의 장인 두리모형 홍경택 대표가 제작한 천삼 모형의 위촉패가 전달됐다.

위촉식을 마친 홍보대사들은 김영수 원장의 안내로 수삼센터, 약초시장, 금산인삼관을 방문하면서 금산인삼의 유래와 우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금산인삼 홍보대사로 위촉된 점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주재국에 돌아가서 홍보대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재외동포체육회 18개국 중 7개국이 참석했으며, 개인일정 및 항공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홍보대사에게는 10월7일부터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전 기간



[수삼센터 방문]



[금산인삼관 방문]



[수삼센터 방문-수삼구매]



[금산인삼관 방문-문화해설사 설명]

중 전달할 예정이라고 진흥원은 밝혔다.

또한, 진흥원은 홍보대사들에게 매월 금산인삼관련 소식을 전달하여, 홍보대사들이 자국에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재외동포체육회로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정회원 18개국, 준회원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 대한체육회로 인정을 받아 매년 고국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해외동포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있다.

[홍보마케팅팀 최대영]

제40회 금산인삼축제,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축하 비행 확정

공군 53특수비행전대 방문...시행 방안 협의 및 인삼축제 홍보



제40회를 맞은 금산인삼축제에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축하 비행이 확정됐다.

금산군은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금산인삼축제에서 에어쇼 축하 비행에 선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가 올해로 연기됨에 따라 다시 신청해 2년 연속으로 축하 비행에 선정됐다.

지난 20일 강원도 원주시 공군 53특수비행전대를 방문한 이종규 금산군수 권한대행,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 이왕근 금산군 재향군인회장 등 25명은 김용민 전대장을 만나 에어쇼 시행을 확정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산인삼축제도 홍보했다.

군은 오는 9월 30일부터 11일간의 인삼축제 일정 중 10

월 8일에 에어쇼를 공개할 예정이다.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으로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구성됐으며,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특수 비행을 선보여 지난 2012년 영국공군 주관 최대 에어쇼인 와딩턴 국제에어쇼와 세계 최대 군사에어쇼인 로열 국제에어쇼에서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종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대표 산업형 축제인 금산인삼축제에서 에어쇼를 선보여 주시는 공군 53특수비행전대에 감사드린다”며 “영공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군 장병들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금산군]



2022 블랙이글스 에어쇼 일정

- 10. 2.(일) 김제 지평선 축제 [김제]
- 10. 8.(토) 제40회 금산 인삼축제 [금산]
- 10. 8.(토) 진주 남강 유등축제 [진주]
- 10. 9.(일) 세종 축제 [세종]
- 10. 11.(화) 공군작전 전승행사 [강릉]
- 10. 15.(토) 계룡 세계 군 문화 엑스포 [계룡]
- 10. 16.(일)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영광]
- 10. 20~23.(목~일) 공군과 함께하는 2022 사천에어쇼 [사천]
- 10. 28.(금) 춘천지구 전투 전승행사 [춘천]
- 10. 29.(토)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칠곡]
- 11. 11.(금) 턴 투워드 부산 [부산]
- 12. 1.(목) 공군 제149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 [진주]
- 12. 30.(금) 공군 제244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식 [진주]

※ 코로나19, 국가급 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8월은 해외 에어쇼 참가 기간으로 국내 행사 지원이 불가합니다.

Black Eagles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민간기업인데”... ‘公社’ 내세워 홍삼 장악한 KGC인삼공사

영세 업체엔 상표 소송

애견건강보조식품 ‘견관장’에 상표권 소송

농협홍삼, 동인발효삼 등에 상표권 침해 제기

2002년 민영화... ‘국가 인증 브랜드’ 유지 위해 공사명칭 20년간 사용 업계 “영세업체 죽이는 내로남불” 지적



KGC인삼공사가 최근 애견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회사와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해당 업체가 2020년 10월 내놓은 ‘견관장’이라는 제품이 자사의 대표 홍삼 브랜드 ‘정관장’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디자인까지 유사하다는 게 KGC인삼공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홍삼 제조·유통업계에선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012년 농협홍삼을 향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인 이후로 KGC인삼공사가 시장에 홍삼 제품이 나왔다하면 소송을 제기한 데 더해 애견식품까지 막은 데 대한 비판입니다.

실제 국내 홍삼 시장의 역사는 KGC인삼공사가 벌인 상표권 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인데도 ‘공사(公社)’라는 명칭을 앞세워 국내 홍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KGC인삼공사가 경쟁자의 추격이 있을 때마다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반격에

나서왔기 때문입니다.

소송전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갑니다.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해 만든 농협홍삼이 한삼인을 만들어 꾸준히 매출을 올리자, KGC인삼공사는 한삼인이 자사 상표권(홍력·홍삼정G클래스) 및 디자인(홍삼정G클래스)을 침해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KGC인삼공사는 2018년 종근당건강(아이키커-아이커 상표 유사), 2019년에는 동인발효삼(홍삼 로고 유사)을 향해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대동고려삼주식회사를 향해 로고 등 유사상표 특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계에선 KGC인삼공사를 향해 ‘영세업체를 죽이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사라는 이름을 내세워 ‘홍삼=정관장’이라는 공식이 성립된 상황에서 제품명 등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곧장 소송을 걸어 사업 영위 자체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KGC인삼공사는 2002년 민영화된 **KT&G**의 전신



인 담배인삼공사가 1999년 인삼사업부를 분리해 세운 100% 자회사인데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기업이라는 의미를 지닌 공사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인증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기 위함이지요.

덕분에 KGC인삼공사는 국내 홍삼 시장의 70%를 홀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란 지원군을 등에 업은 농협홍삼, 자금력이 있는 종근당건강 정도만이 상표권 소송을 버티며 시장 점유율을 일부 점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농협홍삼은 시장 2위지만 시장 점유율은 5%에 그칩니다.

이런 가운데 KGC인삼공사를 향해 ‘공사’를 때라는 소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대법원은 ‘유사 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에서 국가·공공단체와 관련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기업의 공사 상호를 금지했지만, 이미 등기된 상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KGC인삼공사의 홍삼 제품은 가격도 비쌌습니다. 국가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띄운 고급화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의 홍삼정스틱의 경우 60포가 12만원에 책정됐지만, KGC인삼공사 정관장의 홍삼정에 브리타임은 스틱 50포가 13만9000원입니다.

홍삼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KGC인삼공사의 홍삼 제품은 다른 업체의 홍삼과 비교해 사포닌 함량, 중량, 영양분류량 등 성분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훨씬 더 비싸다”면서 “공사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GC인삼공사도 홍삼업체의 이 같은 시선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공사 명칭 규제가 논의되기도 하면서 한때 공사라는 명칭이 들어간 사명을 자사의 대표 브랜드인 정관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홍삼 시장의 성장세가 지지부진한 속에서 그나마 활로가 되는 중국 시장을 놓을 수 없다는 점이 KGC인삼공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회주의권인 중국 시장의 특성상 ‘공사’라는 이름이 들어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신뢰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KGC인삼공사는 “인삼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사용해 온 ‘인삼공사’라는 명칭을 바꾸게 될 경우 위조품 오인 등 고려인삼의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KGC인삼공사뿐만 아니라 인삼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GC인삼공사 매출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9년 1조4036억원이었던 매출은 2020년 1조3335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조2928억원으로 재차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19년 2059억원에서 지난해 절반 수준인 1168억원이 됐습니다.

KGC인삼공사는 유산균·멀티비타민과 카페, 뷰티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홍삼은 여전히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합니다.

공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정관장’, ‘홍삼정’ 등 브랜드명 사용을 막는 소송전이 어찌면 더 거세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제 4 회

금산 인삼초 축제

2022.9.30(금) ~ 10.10(월)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금산군



금산축제관광재단

전통약초 활용 고부가제품화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강

- 식품가공국가자격 및 약용차제조민간자격 등 10월까지 진행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5월 2일, 지역농업인과 시장상인의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2과정을 개강하였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금산군과 진흥원이 지역약초재배 농가의 농업수입 향상과 관련시장상인의 제품다양성과 수익성 높은 제품화 역량 강화를 위한 증장기교육프로젝트로 9월말까지 진흥원과 다락원에서 이론과 실습과정이 진행된다.

본 교육사업은 각 과정별 30명의 수강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식품가공기능사반에서는 식품의 성분과 영양, 물성 등에 대한 식품화학론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과 식중독, 위생관리에 대한 식품위생학적 이론교육과 식품저장 및 가공기술 등 실기를 포함 총 22회 66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약용차소믈리에반에서는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약초에 대한 기본이론교육과 함께 식품재료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방법 등의 이론과 실습교육을 30시간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김영수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약초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약초소비 확대 등 정체된 금산 약초산업의 재도약의 기틀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활동과 연구개발, 검사지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구개발센터 유대석]

[본 기사는 굿모닝베트남의 2022년 5월4일자
기사로 응옥림 베트남 삼에 대한 기사입니다.]

끈뚝성은 응옥림 베트남삼의 수도가 되기를 열망 연수와 무게에 따라 1킬로당 3485달러~1만891달러



끈뚝성 푸모롱 지구의 응옥림 베트남삼 정원 1호

끈뚝성은 종자와 자본에 대해 적극적인 것 외에도 2030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큰 응옥림 베트남삼 원료 면적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과 농가를 연결한다.

20년 가까이 응옥림 베트남삼을 채집하고 재배한 후인 반리엠 끈뚝 농업농촌개발부 차장은 응옥림 베트남삼이 현재 약1240헥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로 푸모롱(Tu Mo Rong) 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1190헥타가 넘고 나머지는 닥글레이(Dak Gle) 구에 집중되어 있다.

끈뚝성은 2022년 응옥림 베트남삼 500헥타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푸모롱지구는 490헥타, 나머지는 닥글레이 지구에 심는다.

끈뚝성은 또한 2025년까지 약 4500헥타의 응옥림 베트남삼과 10만헥타의 다른 약용식물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1만헥타 이상의 응옥림 베트남삼으로 증가할 것이며, 베트남에서 응옥림 베트남삼과 약초의 가장 큰 수도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뚝은 적극적으로 지역 기업과 농부와 협력해서 개발하도록 했다. 여기서 공급망의 역할 외에도 기업은 농가에 씨앗을 공급할 것이다.

끈뚝 응옥림 베트남삼 합자회사의 이사회 회장인 쩌호안 씨는 매년 기업들은 그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 각 가정에게 100 응옥림 베트남삼 씨앗을 준다고 말했다.

올해 회사는 끈뚝에 있는 쉼당 소수민족에게 100만 그루의 묘목(응옥림삼 포함)을 기증했다. 그는 "동시에 지역민들이 직접 인삼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텃밭에 나와 일하도록 하고, 심는 기술을 배우고, 보살피도록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응옥림 푸모롱 끈뚝 베트남삼 주식회사는 코빈



K5 베트남삼정원의 10년이상된 응옥린 베트남삼

인민 위원회와 응옥린 베트남삼 제품, 보라색 인삼, 홍삼 및 기타약초를 소비하기로 약속했다. 목표는 이 지역의 농부들을 위한 생산량을 창출하는 동시에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북부와 중부 고원의 제약 제조 및 유통 회사들도 끈뚝에 응옥린 베트남삼의 원료 지역을 건설할 계획이다. 하노이의 한 제약회사는 회사가 향후 의약품의 생산과 가공을 위해 약 100헥타의 응옥린 베트남삼을 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모종 출처를 찾아 전문가를 고용해 적합한 식재지역을 평가·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포닌 함량이 높은 응옥린 베트남삼은 가장 중요한 의약품 중 하나인 베트남의 국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응우옌쑤안푹 주석이 총리였을 때 응옥린 베트남삼 국가연구개발센터에 이 삼이 베트남의 고유종이며 세계 최고의 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제안한 적이 있다.

사포닌은 건강에 이로운 물질이다. 인삼의 사포닌 함량이 높을수록 품질이 우수하다. 응옥린베트남삼연구개발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인삼은 정상적인 화학구조를 가진 사포닌이 32개 정도밖에 없는 반면 베트남의 응옥린 베트남삼은 56개(2배)나 된다.

이밖에 오코틸롤과 마조노사이드-R2(MR2)가 함유된

사포닌 담마란 화합물이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 함량이 50%를 넘는 곳은 응옥린 베트남삼뿐이다. 이 물질은 응옥린 베트남삼이 많은 위험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초로 사용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응옥린 베트남삼은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삼으로 여겨진다.

응옥린 베트남삼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끈뚝성은 재배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은 기업과 단체, 개인에게 응옥린 베트남삼제품의 우표를 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더 엄격한 관리를 위해 원산지와 재배 지역을 추적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위조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응옥린삼을 재배하고 있는 두 개의 지방은 쩡남과 끈뚝이다. 쩡남은 약 1만6천헥타를 심을 계획이며, 끈뚝은 1만 7천헥타이다. 쩡남은 약 20개의 기업이 7천~8천헥타 면적의 삼 재배 농가와 임대 계약을 맺고 있다.

쩡남에서 공급되는 제품의 수량도 상당히 일정하다. 매월 1일 남짜미 지구(쩡남) 중심지에 삼시장이 열린다.

가격은 삼의 연수와 무게에 따라 1kg당 8천만동~2억5천만동이다. 끈뚝성은 박람회와 관광축제 등을 통해 삼을 관광객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굿모닝베트남]

충남고향사랑준비단 답례품 개발 속도 - 충남도, 두번째 회의 열고 답례품 관련 세부 계획 등 공유 -



충남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답례품 개발 및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고향사랑준비단은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각 분과별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유호열 고향사랑TF 팀장의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상황’ 공유 및 ‘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상황’ 안내에 이어 각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 도 고향사랑기부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전문가 자문 순으로 진행했다.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홍보 추진 및 답례품 개발 관련 세부계획이 발표됐다.

먼저, 기획·홍보 분과는 지난 2월 마련한 홍보계획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분야별 주요 행사나 방문 일정을 수립하여 행사 장소나 성격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답례분과는 답례품으로 제공 가능한 특산물·관광체험

등 품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담당 분야의 품목별 답례품 선정기준 마련에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체험과 아울러 △지역문제 해결형 답례품 △배려형·기증형 답례품 △응원형 답례품 등 출향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스토리를 담은 답례품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부지사는 “각 부서의 홍보방안 마련과 답례품 개발을 위한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답례품은 단순한 기부자에 대한 일회성 대가품이 아닌, 기부자들에게 충남과 오랜 인연을 이어나가고자 부탁드리는 충남이 사랑하는 대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서는 홍보와 답례품 준비에 대해 사명을 가지고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고향사랑준비단은 답례분과와 기획·홍보 분과를 이루고 있는 19개 부서와 조언 및 자문을 위한 5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충청남도]

금산인삼연구회, 가족화합대회 성료 인삼연구회 회원 및 가족 등 300명 참가



금산인삼연구회는 지난 27일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운동장에서 인삼연구회 회원 및 가족 등 300명이 참석하는 가족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화합대회는 2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분위기를 해소하고 저하된 농업인 사기를 북돋기 위해 가수공연 및 노래자랑 등을 진행했다.

지난 1999년 조직된 금산인삼연구회는 회원 230명이

가입돼 인삼 150ha를 재배하고 있다.

이홍철 회장은 “우리 인삼재배 농업인도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출처 : 충남인터넷뉴스(<http://www.shanews.com>)

금산의 ‘아침마당홍삼’, 캄보디아의 아침을 책임진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1호매장 열고 캄보디아 시장 본격 공략



캄보디아 독점판매 계약체결



현지 지상파 방송사의 취재 열기



캄보디아 아침마당홍삼 1호점 앞에서



현지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영상

인삼의 수도 금산의 아침마당홍삼(대표 서병훈)이 2015년 베트남에 첫 진출에 이어 캄보디아에 수출을 확대하면서 인도차이나반도내 금산인삼제품브랜드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화에 나섰다.

㈜금산물 아침마당홍삼 서병훈 대표는 지난 5월24일 오후(현지시각)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제1호 판매장을 현지 파트너사인 CRO 짜어 썸낭 대표와 캄보디아 독점공급판매권에 대한 서명을 마치고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아침마당 캄보디아 1호점 개장 행사에는 김선경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aT) 캄보디아 소장을 비롯한 농수산물통업체 한인관계자들과 현지 정재계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바이온 TV 등 현지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금산인삼의 캄보디아 진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취재열기를 더했다.

캄보디아 1호점은 현지 파트너인 짜어 썸낭 대표 측과 업무제휴협약서를 체결한지 2년 만에 성사를 이룬 결과

로 코로나 19로 개설이 늦어졌다.

짜어 썸낭 대표는 앞으로 금산물에서 생산, 수출하는 아침마당홍삼 브랜드 제품의 캄보디아 독점판매권과 함께 대리점 개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게 됐다.

서병훈 대표는 “신뢰할 수 있는 캄보디아 현지 파트너를 만난 것은 금산물의 입장에선 정말 큰 행운이었다.”며 “베트남에 첫 진출한 2015년 이후 2년 만에 캄보디아를 시장조사차 방문했으며, 금산물의 제품이 가격과 품질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캄보디아 시장진출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의 인삼수도, 금산은 한국인삼의 75%가 유통되는 메카로 잘 알려져 있다.

금산의 대표 홍삼브랜드인 ‘아침마당홍삼’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검사승인을 취득하여,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았으며, 미국, 일본 등 13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자료제공 아침마당홍삼]

금산군,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브로셔 지원

금산인삼 소공인 제품 브랜드의 가치향상 목표



점자인쇄 브로셔



수출용 고(古)서책 인쇄 브로셔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이종센터간 협업/홍보 브로셔 제작지원」 참여 소공인을 6업체 모집 중에 있다.

「이종센터간 협업/홍보 브로셔 제작지원」은 이종 집적지 전문 센터 간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수요 창출로 금산인삼 소공인 제품 브랜드의 가치향상을 목표로 한다.

해당사업의 추진절차는 청주중앙인쇄센터와 소공인센터간의 협업사업으로 금산 인삼식품 제조·즉석 제조 소공인과 청주 인쇄소공인을 연결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의 주된 내용은 업체당 4백만원 한도 내 사업비 지원을 통해 ▶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고객들에게 홍보 가능한 점자 인쇄 브로셔 제작지원 ▶ 수출업체의 제품가치 차별화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통 제본 소개 책자로 한국의 고서(古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수출용 고서 제작 등 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통 제본 소개 책자는 한글/외국어 병행 표기로 수출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소공인들에게 매력적인 홍보물이 될 것이며, 해당 사업 참여를 통해 특색 있는 홍보물로 판로개척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은 금산군 관내에서 인삼, 홍삼식품을 제조하는 소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공인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공인센터는 관내 인삼, 홍삼 식품 및 즉석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성장지원기관이다.

[소상공인기업지원팀 박지수]



[K-농업 차세대 원동력]

캄보디아·멕시코 넘어 몽골·카자흐로...해외 시장 개척 박차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20개국 중점 추진... 현장에서 시장 조사·선도기업 육성해 공략



▲ 이달 7~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안게임 현장에 설치된 K-푸드 홍보행사장.

(사진제공=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시대가 열렸다. 1971년 수출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50년 만의 성과다.

코로나19 확산과 물류난 속에서 이룬 값진 성과다.

한국산 농수산식품은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수출 길에 올랐다.

이후 2008년부터는 한식 세계화 추진을 등에 업고 한국 음식과 식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최근에는 'K-팝'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농식품 수출 '전성시대'를 이끈 주역은 체계적인 수출진흥책과 이에 부응한 농어가였다.

정부는 온라인시장 판로 개척, 물류 인프라 확충, 유망 품목 육성 등을 통해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고, 농어가 등 민간에서는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일본과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을 다변화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는 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0년대에는 일본, 중국, 미국 등 수출 상위 3개국에 대한 비중이 60~70%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와 유럽·중남미지역 등 신규 시장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일본 등 상위 3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5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 7개 '최우선 전략국'은 캄보디아·몽골·카자흐·독일·멕시코·호주·캐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농식품시장개척(시장다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출국을 신흥시장 등으로 다변화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매년 최우선 전략국 7곳과 차순위 전략국 13곳 등 20개의 시장다변화 전략국을 선정해 시장개척요원을 파견하고, 마케팅을 지원해 수출 희망 기업의 신시장개척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최우선 전략국은 캄보디아와 몽골, 카자흐스탄, 독일, 멕시코, 호주, 캐나다 등이다. 차순위 전략국은 필리핀, 인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칠레, 과테말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3개 국이다.

이들 국가는 신흥시장인만큼 현지 시장조사와 수출유망품목 발굴, 판촉행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최우선 전략국가 7개국에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외 파일럿 요원'을 파견한다.

이들은 현지에서 바이어를 발굴하고 관리한다.

바이어와 수출업체 매칭을 통해 전략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망 품목을 선별한다.

또 현지 대형유통업체나 전문가,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장 현황과 유통·물류 실태, 소비현황 등 수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한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최우선 전략국에 대한 수출이 전년 6억7700만 달러에서 15.6%가 늘어난 7억 8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별로 유망품목을 발굴하면서 러시아에는 인삼 수출이 확대됐고, 필리핀에는 떡볶이, 캄보디아에는 장류, 호주에는 버섯 등의 실적이 확대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추진한 온라인 마케팅

구 분	아세안	신북방	유럽	중남미	중동	기타
최우선 전략국 (7)	캄보디아	몽골, 카자흐스탄	독일	멕시코	-	호주, 캐나다
차순위 전략국 (13)	필리핀, 인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칠레, 과테말라	사우디, 카타르	남아공

사업명	세부 내용
파일럿 파견 운영	최우선전략국(7개국)에 파일럿을 파견하여 현지 시장조사, 수출유망품목 발굴, 판촉홍보행사 추진 등 신규시장 개척
프런티어인큐베이팅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선도할 「프런티어 인큐베이팅」업체를 선정(50여개사), 시장다변화사업 Tool 연중 집중 지원
세일즈로드쇼	유망 수출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바이어 발굴, 상담회 등 B2B 행사와 소비자체험 등 B2C행사를 연계한 통합마케팅
청년해외개척단	최우선 전략 국가 타겟으로 시장개척에 대한 열정과 역량이 있는 청년을 선발, 수출업체와 1:1매칭 파견으로 시장개척 활동 수행
수출유망품목 육성	전략국가 대상 수출이 유망한 농가소득 연계성 높은 품목을 선정하고 스타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
시장다변화 마케팅	전략국가 대상 한국 농식품 시장다변화를 위한 대규모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를 통한 신규시장 개척 사업 추진

▲올해 수출시장다변화 전략국가(위)와 농식품시장개척사업 주요 내용.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과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카자흐와 캄보디아, 러시아에서는 온라인몰에 K-푸드 전용 판매관도 입점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는 역량 있는 청년들도 힘을 보탠다.

농식품부는 매년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AFLO) 사업을 통해 111명의 청년들을 최우선 전략국가에 선발·파견한다.

이들은 한국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신흥시장 진출을 해외 현지에서 돕는 역할을 한다.

수출타겟국 시장조사, 신규 바이어 발굴, 현지영업, 홍보 등 농식품 수출기업과 일대일로 매칭돼 수출기업을 밀착지원하는 식품무역분야 현장체험형 인턴프로그램이다.

다만 코로나19 이후에는 해외 파견 대신 국내 수출기업에서 현지에 파견한 파일럿과 소통하며 제품을 바이어에 연결해주는 '삼각 매칭'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현지에서 진행하던 K푸드페어를 대체하기 위한 온라인 세일즈로드쇼에서 큰 역할을 했다.

기업과 현지 aT 사무소 사이에서 중간 조율 업무를 하며 수출업체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하는 시점에서 올해부터는 국가별 여건 등 현지 근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해외 파견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유망품목 육성해 선도기업과 시장 공략

다양한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시장을 이끌어갈 기업을 선정하고 유망품목을 발굴해 수출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매년 시장다변화 전략국가에서 수출을 이끌어갈 50여 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기업에게는 해외 영업과 제품개선, 해외마케팅과 판촉을 비롯해 참여사 대상 수출 상담회, 청년인턴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특히 온라인 상담회가 활성화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45개 수출업체가 5개국에서 59개 바이어를 온라인으로 만났고, 하반기에는 37개 기업이 6개국 46개 바이어를 만났다.

이 같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상담회와 사업 확대를 통해 이들 수출선도기업들의 성과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수출선도기업의 수출액은 2020년 1억13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억3900만 달러로 23.1%가 늘었다.

아울러 현지에서 통할 수 있는 유망 품목을 육성하는 것도 주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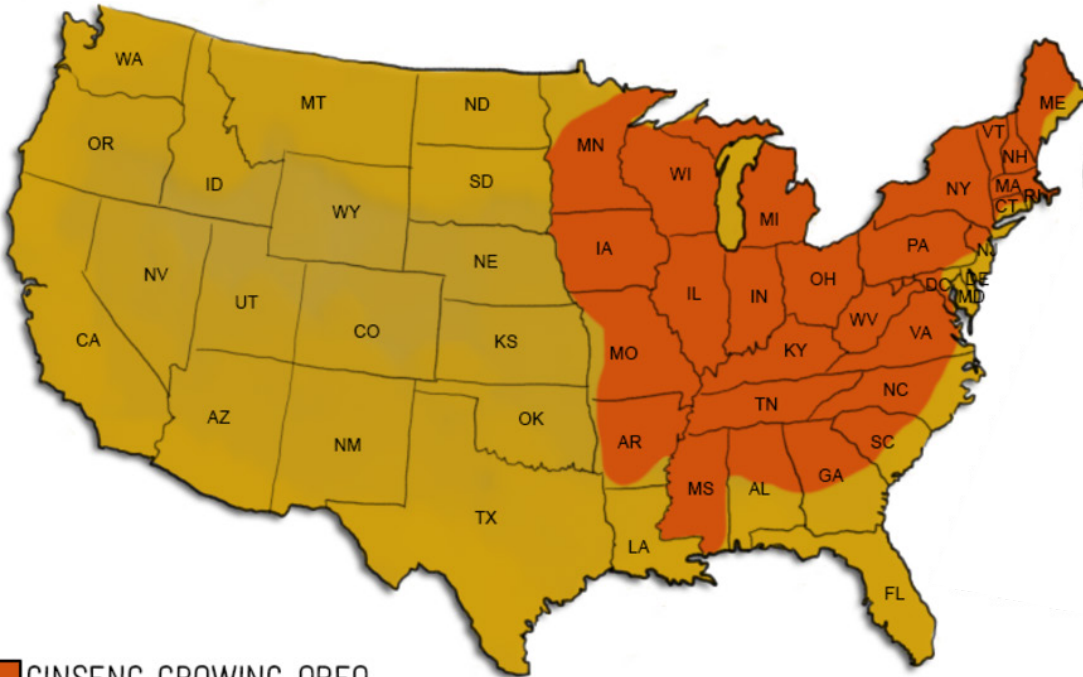
농식품부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파일럿과 해외지사의 의견을 비롯해 선도기업들의 수출 희망 제품군, 농가소득 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 다변화 전략 국가별로 3~5개 유망 품목을 선정한다.

일단 유망 품목을 선정하면 현지 마켓테스트, 바이어 발굴, 소비자 체험, 미디어 홍보, 온·오프라인 판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와 영국에서 딸기와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온라인 홍보와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 등이 이뤄졌다. 러시아에서는 인삼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리는 등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이뤄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쿠킹클래스, 인플루언서 홍보 등으로 영상 조회 수가 1400만 회에 달하기도 했다"며 "쉐프 연계 레시피 홍보 등 현지 여건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삼, 지속적인 수확 불가능 불법채취시 5,000달러 벌금 및 6개월 징역 형



WHERE GINSENG GROWS IN THE UNITED STATES

GINSENG-GROWING AREA

미국삼 생산지역

Nantahala 및 Pisgah 국유림에서 야생 미국삼 채취 금지는 인삼 개체수가 회복될 때까지 무기한 유지될 예정이다.

야생 미국삼 채취 금지령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물론, 이전에도 국유림에서 미국삼 채취를 제한했고, 과도한 수확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제한된 수의 허가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삼의 쇠퇴로 인해 어떤 수확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삼 수확을 중단하면 국유림의 미국삼 개체 수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 수확하면 이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노스캐롤라이나 국유림의 식물학자인 Gary Kauffman이 말했다.

애팔래치아 산맥에서 미국삼 거래는 2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auffman은 "미국 야생삼 수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애팔래치아 문화의 일부였으며 우리는 그것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야생 미국삼은 국유림에 재도입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현지 생산 베드의 종자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수확하고 있는 상황으로 모니터링은 개체수 수준, 식물 크기 및 종



미국 국유림 미국삼 채굴 허가서

자 생산을 계속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야생 미국삼의 수명은 60~80년으로 종자를 통해 번식한다. 10년 이상 된 식물이 가장 많은 종자를 생산하지만 오래된 식물은 수확으로 인해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다.

허가 없이 국유림에서 야생 미국삼 또는 그 일부를 채취하는 사람은 최고 \$5,000의 벌금 또는 연방 교도소에서 6개월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홍보마케팅팀 최대영]

한미정상 만찬에 ‘특산물’ 금산 인삼-이천 쌀 올랐다

대통령실 “한국 지역 특산물 경험할 수 있게”
 양양 참송이버섯-해남 배추-횡성 더덕 등도
 만찬주로 美나파 와인 ‘바소’…韓인 소유 와이너리



식전먹거리

전병(자색고구마, 단호박, 흑임자), 팥 음료



향토진미5품 냉채

흑임자 두무선, 이색밀쌈, 오이선, 횡성 더덕무침, 금산 인삼 야채말이



강원양양 참송이 버섯죽과 침채



해남 배추를 이용한 순채만두



간장 양념으로 숙성한 미국산 소갈비 양념구이와 야채



팔도 산채 비빔밥과 두부 완자탕



미국산 견과류, 오렌지 젤리, 초콜렛과 이천쌀로 만든 쌀케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1일 공식 만찬 테이블엔 양양의 참송이버섯, 해남 배추, 금산의 인삼, 횡성의 더덕, 이천 쌀 등 다양한 식재료로 만들어진 메뉴가 올랐다. 윤 대통령 주최한 한미 정상 공식만찬에서는 참석자들이 우리나라 각지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경험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팔도에서 나는 제철 나물들을 고추장 소스에 비벼먹는 산채비빔밥은 색과 맛뿐 아니라 계절과 지역,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의미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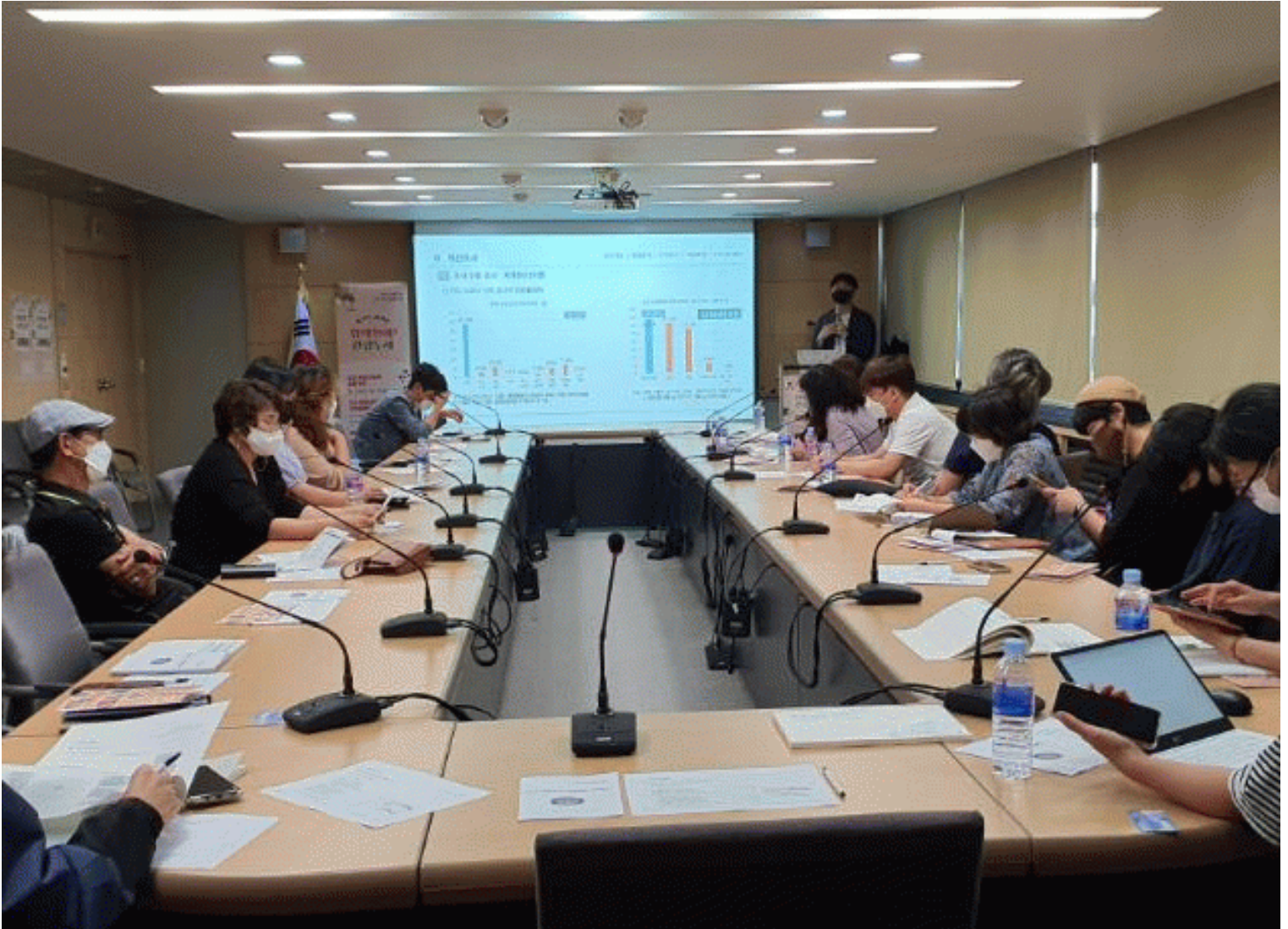
메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산 소갈비를 간장 양념에 숙성시킨(정성을 들여 오랜시간 들여 조리한 수비드 방식) 소갈비 양념구이, 이천쌀과 화이트 초콜렛을 이용한 쌀케익, 미국산 견과류와 오렌지 젤리, 국내산 산딸기와 배 등 양국 식재료의 조화로운 궁합을 보여주는 음식들도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장거리로 피곤한 미국 대통령의 피로회복과 소화를 도와줄 후식으로는 매실차가 준비됐다”고 밝혔다.

만찬주는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한국인 소유 와이너리 ‘다나 에스테이트’에서 생산된 레드와인 ‘바소’다. 대통령실은 “바소는 2010년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만찬주였으며, 공식 만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건배주로는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등에서 만찬주로 쓰인 국산 스파클링 와인 ‘오미로제 결’이, 화이트와인으로는 나파밸리산 ‘샤도 몬텔레나 나파밸리 샤도네이’가 각각 선정됐다.

[헤럴드경제]

금산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사업설명회 개최 오는 6월 13일까지 지역 관광사업체 모집



금산군은 지난 25일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 금산축제관광재단과 함께 올해 추진하고 있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사업설명회를 금산다락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은구 관광두레PD가 △관광두레 사업소개 △금산 지역관광콘텐츠 진단연구 결과보고 △주민사업체 선정계획 등을 설명했다.

관광두레는 지역자원을 연계한 관광사업체를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들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 관광사업을 경영하도록 육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이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주민조직 발굴 및 육성을 도울 강은구 관광두레PD를 선정하고 사업

진행에 나서고 있다.

현재 사업체 모집이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13일까지 관광사업 관련 창업 준비 및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는 금산군청 관광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 강은구 관광두레PD에 문의하면 된다.

선발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는 최장 5년간 최대 1억 1000만 원내에서 역량 강화, 컨설팅, 법률·세무,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유 특색의 관광사업체를 육성하고자 올해 관광두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관내 관광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산군]

[전문가의 눈]

고려인삼 발전을 위한 제언



인삼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강 식품이며 치료제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인삼 고유의 향을 싫어하는 MZ 세대들은 인삼에 접근하기 어렵다.



맛을 개선한 인삼과 인삼제품을 학교와 군

대 급식에 납품해 젊은 세대들이 어린 나이에 인삼을 먹고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시장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삼산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재배인삼은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성은 식약처, 식품은 시·군, 산양삼은 산림청으로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이다.

생산·제조·가공·유통·수출·연구개발(R&D) 등을 통합·조정하는 효율적인 운영기구를 만들어 중장기적인 인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고려인삼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인삼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삼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전제돼야 한다. 인삼산업법에 있는 수급조절 항목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인삼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또 고려인삼을 '농업관측'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파종과 작황, 가격동향과 수급상황 등을 담은 전망자료를 인삼농가에 제공해 경영안정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황광보(고려인삼연합회장)

지리적표시를 가진 우리나라 대표 농산물 고려인삼은 2020년 12월1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로 농산물 최초 국가무형문화재에 등재됐다.

고려인삼은 하늘이 내린 약초라는 뜻에서 신초(神草), 신령한 효능을 지녔다고 해 영초(靈草), 늙지 않고 영원한 삶을 염원한다는 의미의 불로초(不老草)라고도 불려왔다.

고려인삼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이며 현 세대가 누리고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인삼산업은 매우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전무하다보니 인삼 소비가 급감했고 경작비용이 올라 농가들은 인삼경작을 기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귀중한 문화유산인 고려인삼의 발전 방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우선 고려인삼 기능성을 해외에 등록하는 데 힘써야 한다. 기억력 개선,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인삼의 7개 기능성을 해외에서 등록하지 못해 홍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려인삼의 기능성을 해외에 등록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기능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든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해 현지 학자들과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해서 인삼 기능성을 해외에도 등록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래소비자 육성을 위해 국내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2022년 9월30일 ~ 10월10일

금산인삼축제

Geumsan Insam Festival

[피플]

"코로나 이후 베트남서 한국산 건강식품 수요 늘어...인삼 수출27.6%↑"

박민철 aT 아세안지역본부장 "프리미엄 시장 공략 중요..."

안정적인 수요층 확보해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이 중요한 소비 키워드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인삼 제품류에 대한 아시아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對) 베트남 인삼류 수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대비 지난해 27.6%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유, 프로틴 음료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박민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아세안지역본부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베트남 현지의 한국 농수산물 소비 경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K-푸드’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잠정)이 역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 전년보다 15.1% 증가한 113억60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세안을 포함한 신남방 지역의 수출액은 23억 1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4% 늘었다. 이처럼 아세안 지역의 한국 농수산식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aT는 기존의 베트남 하노이 지사를 지난 2018년 아세안지역본부로 격상하고, 아세안 지역 수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겼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베트남 식품 시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박 본부장은 “베트남 또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 온라인 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배달 음식 문화 등이 빠르게 확산됐다”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전 세대에 걸쳐 늘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새벽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콜드 체인 등 유통 인프라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후불결제(COD) 방식이 선호되는 등 대면 및 오프라인 거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한국 농식품은 베트남인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제품’으로 통한다. 그는 “베트남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한국 식문화에 관한 긍정적인 관심도 덩달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베트남 현지인들이 한국산 식품을 소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aT 아세안지역본부의 전략은 크게 ‘프리미엄 시장 공략’과 ‘2선 도시 진출’로 나뉜다. 박 본부장은 “프리미엄

시장의 경우, 팬데믹 상황에서 도 흔들림 없는 수요를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고가일 수밖에 없는 한국 농식품은 프리미엄 식품을 소비하는 안정적인 수요층을 공략해야 장기적으로 베트남, 그리고 아세안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농식품 시장을 확대하고 소비 저변을 넓히기 위해선 하노이, 호찌민 이외에 소득 수준이 높은 ‘2선 도시’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올해 많은 aT 사업들이 2선 도시를 겨냥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베트남은 위드코로나 정책을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시 코로나19 확인 절차를 폐지한 상황”이라며 “하노이 지사는 이러한 외부 활동 증가 추세에 맞춰 스포츠 행사,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K-푸드 소비자체험행사, 판촉 등을 2선 도시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드코로나’가 본격화되는 올해의 목표는 무엇일까. 박 본부장은 “‘분노의 여행’, ‘분노의 소비’라는 표현처럼 그동안 코로나19로 억눌려왔던 여행 수요 및 소비 심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aT 아세안지역본부 또한 사업의 초점을 ‘오프라인’에 맞춰 한류 연계 행사를 추진하는 등 올해에도 K-푸드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인 해로, 한국 농식품을 매개로 한-베 양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금산인삼은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1500년 전통의 명맥을 잇는 유서 깊은 특산물입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고국배송특별전' 판매품목



1
제품명 : 나이스 홍삼스틱 30
제조원 : 금산인삼협동조합
판매가 : 35,000원



2
제품명 : 고려홍삼진액 80ml*60
제조원 : (주)금산대근홍삼
판매가 : 65,000원



3
제품명 : 내물매 고려홍삼스틱 30
제조원 : (주)금산대근홍삼
판매가 : 56,000원



4
제품명 : 리얼진 홍삼액 80ml*50
제조원 : 금산인삼협동조합
판매가 : 75,000원



5
제품명 : 고려 홍삼정 플러스 250g*4
제조원 : 금산진생협동조합
판매가 : 150,000원



6
제품명 : 홍삼&석류 젤리스틱 20g*60
제조원 : 금산진생협동조합
판매가 : 150,000원



7
제품명 : 중년(愛)산수유 홍삼스틱
제조원 : (주)금산대근홍삼
판매가 : 39,000원



8
제품명 : 고려홍삼정 240g
제조원 : (주)금산대근홍삼
판매가 : 80,000원



9
제품명 : 고려홍삼절편삼 200g
제조원 : (주)금산대근홍삼
판매가 : 25,000원



10
제품명 : 감성홍삼정 240g
제조원 : 홍삼천하
판매가 : 99,000원



11
제품명 : 고려홍삼농축액 240g
제조원 : 금산인삼협동조합
판매가 : 109,000원



12
제품명 : 금산 홍삼정 스틱 10ml*30
제조원 : 금산진생협동조합
판매가 : 80,000원



13
제품명 : 큰뿌리 홍삼정과 300g
제조원 : (주)금산대근홍삼
판매가 : 42,000원



14
제품명 : 디저트홍삼스틱 600g
제조원 : 삼이야푸드
판매가 : 39,800원



15
제품명 : 흥기백기 80ml*30
제조원 : 우리가홍삼
판매가 : 35,000원



16
제품명 : 감성홍삼청 700g
제조원 : 홍삼천하
판매가 : 25,000원



17
제품명 : 감성홍삼액 90g*60
제조원 : 홍삼천하
판매가 : 85,000원



18
제품명 : 감성홍삼절편 30g*3*2
제조원 : 홍삼천하
판매가 : 30,000원



금산군
하늘이 내려준
금산인삼
주문연락처 :
* 금번 특별전 상품은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 무료 배송(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제외)

인삼가격정보(자료: 금산군청)

상기 인삼류 가격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삼의 전반적인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자료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금산군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삼류 가격동향(2022. 5. 22)

4근 곡삼	30편	37,200원	50편	36,000원	75편	34,800원
	전시세	37,200원	전시세	36,000원	전시세	34,800원
	등락	0	등락	0	등락	0
	전년동기가격	40,800원	전년동기가격	39,600원	전년동기가격	38,400원

4근 직삼	15편	43,200원	25편	40,200원
	전시세	43,200원	전시세	40,2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45,600원	전년동기가격	43,200원

5근 직삼	15편	45,600원	25편	42,600원
	전시세	45,600원	전시세	42,6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48,000원	전년동기가격	44,400원

6근 직삼	15편	50,400원	25편	44,400원
	전시세	50,400원	전시세	44,4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52,800원	전년동기가격	49,200원

미삼	상품	90,000원
	전시세	90,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90,000원

생건삼	상품	90,000원
	전시세	90,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90,000원



생삼(수삼)	10뿌리	30,000원	20뿌리	25,000원	30뿌리	25,000원
	전시세	31,000원	전시세	26,000원	전시세	26,000원
	등락	-1,000원	등락	-1,000원	등락	-1,000원
	전년동기가격	28,000원	전년동기가격	23,000원	전년동기가격	23,000원
	40뿌리	25,000원	50뿌리	25,000원	70뿌리	26,000원
	전시세	26,000원	전시세	26,000원	전시세	26,000원
	등락	-1,000원	등락	-1,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23,000원	전년동기가격	23,000원	전년동기가격	24,000원

금산군, 월영산 출렁다리 누적 방문객 10만 명 돌파

산림·금강·꽃·특화자원 등 관광 거점별 연계...교류인구 확보 추진



충남 금산군은 제원면 천내리에 위치한 월영산 출렁다리 방문객이 지난 22일 기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개통된 출렁다리는 월영산과 부영산 사이 금강을 45m 높이로 가로질러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경관으로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

또, 금산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인근 인삼어죽거리와 인삼약초시장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군은 출렁다리 조성 및 원골 인공폭포 전망대 설치 등을 추진해 금강 관광 거점을 개발하고 금강 상류의 천혜 자연 여건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월영산 출렁다리를 통한 방문객의 유입이 금산군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산군청]

금산군, 삼삼이와 함께 구석구석 모바일 스탬프투어 전개

스탬프투어 어플을 설치 후 관내 투어 스팟 19곳 중 4곳 이상을 방문

☑ 금산군 스탬프투어 장소

 <p>01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군북면 자간방이길 39 ☉ 산꽃벚 자생 곤학지 </p>	 <p>02 물레길 4구간 제1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58-5 ☉ 십이폭포 기운대 첫번째 </p>	 <p>07 금산산림문화타운 목재문화체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남이면 노티골길 200 ☉ 나무어 놀자 ☉ 태주 할요일 유무 </p>	 <p>08 원골유원지(가래)공원 인심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재원면 천내리 167 ☉ 아욱의 고향 </p>	 <p>13 삼척면 (새계농업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재원면 보정골길 166 ☉ 금산인삼농업생태박물관 </p>	 <p>14 금산인삼관 인삼목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금산읍 인삼목재로 30 ☉ 인삼어 놀자 </p>
 <p>03 물레길 4구간 제5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58-5 ☉ 복포농원폭포 </p>	 <p>04 물레길 4구간 보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남이면 보석사길 30 ☉ 천년고찰의 마허 </p>	 <p>09 황금산 출렁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재원면 천내리 241-8 ☉ 달그림자 붉은 물안개방 ☉ 태주 수요일 유무 </p>	 <p>10 금산산림문화타운 생태숲학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북수면 노티골길 200 ☉ 생강이 숨쉬는 공간 </p>	 <p>15 신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재원면 신안사로 970 ☉ 물과 대음이 만나는 곳 </p>	 <p>16 진산성지성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진산면 삼막로 207 ☉ 천주교의 성지 </p>
 <p>05 물레길 4구간 석동리 숲속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797 ☉ 마을정자 문화가 베풀는 곳 </p>	 <p>06 물레길 4구간 정자마을유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남이면 대곡리 597 ☉ 노티골우 정자에서 잔여산 두테를 보아라 </p>	 <p>11 금성산 솔래길 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금성면 회초리 548-7 ☉ 출렁다리 : 군북면 내유리 588-1 ☉ 가족형 트레킹 코스 </p>	 <p>12 금산역사문화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75 ☉ 금산역사의 길어 열려라 ☉ 태주 할요일 유무 </p>	 <p>17 황백의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금성면 의평길 50 ☉ 700 의승행脚的 유해물 모신 호국영령의 성지 ☉ 태주 할요일 유무 </p>	 <p>18 태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진산면 형정동로 440 ☉ 손수레고 위엄 풍경 </p>
				 <p>19 금산역사문화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남이면 계성로 101 ☉ 인삼마을의 시간 </p>	

금산군(군수 권한대행 이종규)은 관내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명소 활성화를 위해 6월 1일부터 삼삼이와 함께 구석구석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전개한다.

참여 방법은 스탬프투어 어플을 설치 후 관내 투어 스팟 19곳 중 4곳 이상을 방문하면 되며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인삼 비누 선물세트를 받을 수 있다. 단, 금산군민은 참여는 가능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념품을 받을 수 없다.

주요 스탬프투어 장소는 군북면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남이면 십이폭포·보석사·금산산림문화타운·개삼터, 제원면 원골유원지·월영산 출렁다리·포평뜰·신안사, 북수면 생태숲학습관, 금성면 솔래길·칠백의총, 금산읍 금산역사문화박물관·금산인삼관, 진산면 진산성지성당·태고사 등이다.

또, 스탬프투어 어플을 통해 각 관광지에 관한 도보 및

차량 길 안내, 전자 지도 장소 안내, 여행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통해 관내 관광지의 인지도 및 체류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광 유입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



삼삼이와 함께 구석구석
금산군 스탬프투어
 일시 | 2022. 6. 1일 ~
 대상 | 금산에 눌러온 누구나



하늘선물 금산인삼

면역력에 답하다



금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하늘선물 금산인삼!
금홍마크와 G-마크로 정품을 확인하세요



QR코드로 제품정보 및 정품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산이 Geumsan
Ginseng
뿌리입니다

발행일 2022. 05

발행인 김영수

발행처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전화 041-750-1672

팩스 041-750-1679

주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